

해양수산부 항만이용자 노무공급개편 의견나눠

오 장관 항만이용자 대표들과 조찬간담회 개최

지난 9월9일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은 9월12일 해운기업, 대형하주, 항만하역업체 등 항만이용자 대표 30여명을 초청해 조찬간담회를 갖고 항만노무공급체제개편 방안 및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프라자호텔에서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이 우리나라 항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동북아물류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며, 성공적인 체제개편을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의견을 같이하고 정부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또 항운노조가 정부입법안과 별도로 법안을 마련해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한 최근 상황에 대해 노조의 법안 제출로 특별법안의 처리 및 체제 개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 5월6일 항만분야의 노사정은 우리나라 항만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해 지난 6월 임시국회에 지원특별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해 추진했으나 항운노조의 반발 등으로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여야와의 협의를 통해 정부의 개혁의지를 담아 정부입법 형식으로 특별법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정부입법 절차를 거쳐 지난 9일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다.

한-중 카페리이용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

9월26일부터 2회이상 카페리 이용 입국자

한중간 카페리선을 이용하여 2회 이상 입국한 중국인들은 9월26일부터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다.

법무부와 해양수산부는 9월26일부터 한중간 카페리를 이용, 2회 이상 입국해 법 위반사실이 없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국인들에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복수무사증입국대상자'임을 확인해 다음 입국시부터 월 4회의 범위 안에서 비자없이도 입국할 수 있는 '무사증(NO-VISA)' 입국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인들의 국내 입국이 더욱 용이해져 한중간 인적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중국인들의 불법체류 현실을 고려해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이번 조치로 보다 자유롭게 양국을 오갈수 있게 됐으며, 특히 중국 연안지역의 소무역상과 우리나라에 빈번하게 출입국하는 중국인들이 크게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인천·평택·군산지역의 교류가 더욱 활성화돼 지역경제 발전과 중국인 관광객 유치확대로 인한 국내 관광산업이 활성화에도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앞으로 6개월동안 이 제도를 시범 시행한 후 불법체류 등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으면 계속 시행할 방침이다. 해양부도 앞으로 카페리를 이용해 입국하는 중국인의 무사증 입국 허용대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